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
 곧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의 집대성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

9/8 월요일

아침의 누림

갈 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창 3:15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갈 4:4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엢 1: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눅 8:5, 11

5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밭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 버리기도 하였으며,

11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 7:14 그러기에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마 1:16, 20-21

16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20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십시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21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가장 악한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지만, 사탄은 간교하게 종교를 이용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종교는 선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종교만큼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 종교적인 것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종교적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데, 그 이유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 때문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1 권, 신약에서 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12 장, 933-93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구속자와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은 모두 씨에 관한 것이다. 이 씨는 바로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이다. 이 세 가지 씨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지만, 이 씨들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신약에서이다. 마태복음 1 장 1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라고 말한다. ... 이 계보에 많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마리아)의 씨와 다윗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구속과 구원의 약속들 안에서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분배를 본다.

첫 번째 약속은 여자의 씨(창 3:15)에 대한 약속이다. 이 씨는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즉시 주어졌다.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마 1:16, 갈 4:4). 다윗왕의 여자 후손인 마리아는 약속되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자 여자의 씨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요 1:1, 14, 마 1:23). ...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다. 그러나 어떤 한 시점에서

그분은 더 이상 홀로 계시지 않기로 결심하셨다. 그분은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오기를 갈망하셨으며, 이러한 그분의 갈망이 창세기 3 장 15 절에서 예언되었다. 그러나 마태복음 1 장에서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까지는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내가 매우 많으시므로 사천 년 동안 침묵하셨다. 주님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방문하신 것은 그분께서 아담을 방문하셨던 것과는 달랐다. 이번에 하나님은 처녀의 태 속에 들어가셔서 아홉 달 동안 머무르셨으며, 그녀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사람이 되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임마누엘(마 1:23),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셨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에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포함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사람이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 곧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되신 것은 사탄을 멸망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뱀을 멸망시키는 것이다(창 3:15).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망시키셨다(히 2:14).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 가지 것, 곧 사탄과 죄와 죽음이 사람을 괴롭혀 왔다. ...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사탄을 멸망시키고 그분의 믿는 이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8 장, 114-11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8-9 장

9/9 화요일

아침의 누림

갈 3:16, 29

16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해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29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롬 1: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창 12:2-3, 7

2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3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창 17:7-8

7 나는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네 뒤를 이을 너의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나와 네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8 나는 네가 지금 체류자로서 살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나와 네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요 14:17-20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시다(창 12:3)...창세기 17 장 7 절에서 하나님은 그분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리고 그분과 그의 ‘씨’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갈라디아서 3 장 16 절에서 바울은 씨에 관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 장 16 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해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좋은 땅을 주시리라고 이해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장차 그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이었다(갈 3:14).(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8 장, 118-11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의 실재이신 약속되신 그 영을 가리킨다(갈 3:14, 요 14:17-20). 아브라함의 한 씨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은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분이시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 영은 아브라함의 씨이시다(고전 15:45 하, 고후 3:17-18, 롬 8:9). ... 이 씨는 우리의 구속자와 구주만이 아니라 또한 생명주시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시는 영은 변형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다.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최상의 복이자 완결된 복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님 자신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한 영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필요하다(고전 6:17). ...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분이 계신다. 찬송가 1071 장 3 절에 이러한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영광 안의 한 사람 / 그분의 생명 나 위하네 / ...그분은 강하고 활력이 넘치시네 / 그분은 거침없이 솟아오르시는 분!”(영어 찬송가 가사 직역) 솟아오르시는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아브라함의 씨이시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최상의 복이시다.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위한 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완결되신 영을 그들의 신성한 유업이자 영원한 영적인 복으로 상속받는다(행 26:18, 엡 1:14 상, 갈 3:14).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이시며,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다(갈 3:29). ...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며, 우리의 성은

아브라함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이다(롬 4:12).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적인 복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곧 완결되신 영을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장 누림이 되는 것은 내주하시는 영이다.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분배는 또한 다윗의 씨에 대한 약속에서도 발견된다(삼하 7:12-14 상, 마 1:1, 6, 22:42-45, 롬 1:3, 계 22:16). ‘다윗의 씨’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분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다(행 2:30-31, 마 16:16-18).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긍휼들로서, 하나님 자신을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계신다. 이러한 분배는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왕권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딤후 2:12, 계 20:4, 6).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 내는 것이고,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상속받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며,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로서 그분과 함께 왕권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8 장, 119-1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

9/10 수요일

아침의 누림

갈 3: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갈 1:15-16

15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엡 3:8, 19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 13:14-18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15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16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을 것이다.

17 일어나서,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18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삼중 씨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길을 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라는 짧은 책에서 바울은 그가 사람들에게 공급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완결되신 하나님, 곧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 영이시라는 사실을 제시한다(3:14). ... 하나님의 복음의 복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곧 완결되신 영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자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모든 것을 포괄한 복의 집대성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이다(갈 1:16).(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3 장, 206-20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을 들은 그 시각 이후로 그들 안에 어떤 계시가 있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후에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라는 풍경이 그들 안에 비추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 우리는 단지 무언가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리스도는 심오한 분이시자 그 크기가 온 우주의 차원과 같은 분이시다. 우주의 차원에는 한계가 없다. ...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에게 이 우주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곧 그리스도의 차원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역량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엡 3:17-18). ... 오,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 할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안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며, 나는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무언가를 더 보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계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각 방면은 이러한 계시에서 나온다. 우리는 우리가 본 그리스도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 ...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내가 날마다 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계시되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되셔야 한다. ...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은 줄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신다. 이러한 계시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3 장, 208-209 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받을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 더욱 더 사실적이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더 사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음의 유일하고도 중심적인 복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 되신다는 의미이다. 이 땅의 실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과정을 거치신 영, 생명 주시는 영이다. ... 우리가 우리의 관념을 떨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영을 주의하고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실 것이다. 매일매일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누림이 되실 것이다. 결국 이 살아 있는 인격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새 창조물로 만드실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결국 살아 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적인 계시에 의해 우리를 새 창조물이 되게 한다.

내적이고 주관적이고 영적인 계시를 받는 길은 항상 우리의 관념들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또한 우리가 주님 외의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그분만을 위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영을 주의하고 말씀에 시간을 들인다면 계시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부담과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충만한 상태로 이끌리고 새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 새 창조물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며,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린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4, 63-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3

9/11 목요일

아침의 누림

갈 3:2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갈 4:6, 29

6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29 그러나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 12: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고후 4: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를 더 본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분 편에서 계시하고 계신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받아들이는 때 우리는 믿음을 들음으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갈 3:2).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영은 내주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합되시고,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다. 우리는 그러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

갈라디아서 3 장 2 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일은 함께 우리 믿음의 내용을 구성한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3 장, 209-21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내용,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의 일을 전파한다. ...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일에 대하여 듣고 있는 동안 그들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행위이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믿는다. 로마서 10 장은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이며(14, 17 절), 전파하는 것은 보냄 받는 것에서 나온다(15 절)고 말한다. 최근에 나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와 헝가리를 방문하기 위해 동유럽에 갔다가 막 돌아온 사랑스러운 한 형제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보고를 읽고 나는 우리가 믿는 것을 전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 그러나 그곳에 갈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라?”(사 6:8)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겠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생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실 것이다. ... 만일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다만 열 사람을 돌본다면, 나는 반년 내에 여러분을 통해 그 열 사람이 모두 주님께 인도되고 진리 안으로 이끌릴 것이라고 믿는다.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세 번째 길은 그 영을 따라 태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4:29 상, 6). ...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거듭남을 가리킨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거듭났다. 즉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성취되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네 번째 길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갈 3:27).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벗겨벗은 상태였고 우리를 가려 줄 그 무엇도 없었다. 벗겨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무언가로 입혀져 옷 입게 되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 마태복음 28 장 19 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우리는 그들을 물속으로만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들 위에 입혀 준다. 즉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게 한다.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을 물속으로 넣을 뿐 아니라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는다는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더 이상 벗겨벗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옷 입혀지고 덮였습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 곧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모든 것을 포괄한 복의 집대성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3 장, 210-211, 214-2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4

9/12 금요일

아침의 누림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롬 6:3-4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 1:20-21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5:14-15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1, 14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히 2: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갈라디아서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다섯 번째 길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어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갈 2:20).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실체가 됨으로써 그분과 동일시된다. ... 우리는 두 가지,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롬 6:3).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실체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께서는 역사이지만 우리에게서는 현재의 살아 있는 생생한 체험이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어지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3 장, 2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이 절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생명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산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재화인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서 말하는 생명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이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전히 먹고 잠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말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으로 살지 않고, 나의 믿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여전히 어떤 생활이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더 많이 사실수록 나는 그분의 보배로움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분의 보배로움을 더 많이 감상할수록 더 많은 믿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 의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삶입니다. 나 자신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종결되고 끝났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심지어 장사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여전히 살고 있지만,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단지 교리나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주님을 불러야 한다. ... 이렇게 주님을 부른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아침 부흥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 두 절을 옮겨 적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흡수한다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감상하며,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제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정도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3 장, 216-217 쪽, 14 장, 224-22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3 장

9/13 토요일

아침의 누림

갈 5:16-18

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17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18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갈 6:7-8

7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고전 15:53-57

53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대에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섯 번째 길은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다(갈 5:16, 25).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은 그 영에 의하여 처신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영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신다(롬 8:16).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느슨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하루 전체를 망칠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영 안에 있다(고전 12:3).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시 우리의 영으로 이끌린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루의 좋은 시작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따라 모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는 체험을 가진 다음에 온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할 수 없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4 장, 226-22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일곱 번째 길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 장 19 절은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라고 말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덟 번째 길은 그 영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 영의 갈망과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다(갈 6:7, 8 하). 우리 사람의 생활은 일종의 씨를 뿌리는 생활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며, 무슨 씨를 뿌리든지 우리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고귀하고 유익한 무언가를 씨로 뿌린다면 그것과 동일한 것을 거둘 것이고, 우리가

비열하고 저속한 무언가를 서로 뿌린다면 그것과 동일한 것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 갈라디아서 6 장 8 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힘써 올바른 씨를 뿌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영을 위하여 씨를 뿌린다면 그 영에게서 거둘 것이다.

넥타이 하나를 구입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수확은 우리가 그 넥타이를 매고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올 것이다. 그 넥타이가 너무 세상적이라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헛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영에 따라 옷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서 없어질 것이다.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아홉 번째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새 창조물을 사는 것이다(갈 6:14-15). 이것은 종교와는 그 어떤 관계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는 만물이 이미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한다. 자동차를 사랑하고 큰 집을 사랑하고 멋진 유행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이미 종결되었다.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로 제해졌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제 우리는 새 창조물을 살고 있다. ... 모든 것이 틀림없이 새로울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최종적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멘.”(6:18)으로 끝맺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다.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4 장, 227, 230-2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4 장

9/14 주일

아침의 누림

갈 3:5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갈 5:5, 22-25

5 우리는 그 영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2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23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갈 6:15-16, 18

15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기 때문입니다.

16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